



2024년 / 7월 1주차

■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

○ 7월 3일(수) 17시: 사무국 주간회의

■ 연구원 소식

- 창작소극장 정기공연 단체 관람

지난 주 소식에서 안내드렸던 창작극회 정기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. 우리 연구원은 박규현 운영위원의 협찬으로 지난 주에 6월 27일(목) 19시 30분, 28일(금) 19시 30분, 29일(토) 15시 등 총 3회에 걸쳐서 회원들이 연극의 세계와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귀한 기회 나눠주신 박규현 운영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
- 인문클래스 영상 안내

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와 전주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<인문 클래스 시즌1> 영상 강좌를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 이번주에 전해드리는 영상은 우리 연구원 전병구 박사님이 진행한 두 개의 강좌입니다. 아래 주소로 입장하시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.

"전주의 초등학교 연대기!"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7g7R7CJLkU&t=3s>

"전주의 중등학교 연대기!"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_7xICpNGKU&t=9s

2024년 제2회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진공모전이 열립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당신의 인생 사진을 기다립니다.

제2회 한고연

사진
공모
전

2024.07.01 - 07.28

공모주제 역사 및 문화 콘텐츠

시상내역 대상(50만원), 최우수상(2명 각 30만원)
우수상(2명 각 20만원), 장려상(10명 각 10만원)

문의전화 010 - 3408 - 0128 (박애스더 행정간사)
*제출처 hangoyeon@hanmail.net

2024년 제2회 한고연 역사문화 사진 공모전 공모요강

우리나라의 역사,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
「2024년 한고연 역사문화 사진 공모전」은
한국 고전과 역사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.

1. 공모개요

- 공모명 : 2024년 제2회 한고연 역사문화 사진 공모전
- 공모부문 : 사진
- 공모주제 : 역사 및 문화 콘텐츠
 - 일반 사진 부문 : 우리나라의 역사, 문화적 가치 및 풍경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모든 사진 작품
 - 옛 사진 부문 : 역사 문화 관련 필름 인화 사진
- 공모대상 :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

2. 공모일정

- 공모기간
 - 7월 1일(월) ~ 7월 28일(일)
- 심사
 - 규격심사 및 온라인 심사 : 7월 29일(월) ~ 8월 5일(월)
 - 최종 심사 : 8월 13일(화)
- 수상자 사전 연락 기간
 - 8월 14일(수) ~ 8월 16일(금)
- 수상자 서류 및 자료 취합
 - 8월 19일(월) ~ 8월 23일(금)
- 당선작발표
 -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소식지 발표 및 개별 통보
- 문의 :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무국

※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역사 속의 오늘

수은중독으로 열다섯에 쓰러진 소년 송면이의 죽음 - 1988. 07. 02

1987년 12월 영등포 소재 협성계공에 입사한 소년 문송면은 불과 2개월 만에 수은중독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6개월의 투병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. 충남 서산에서 상경한 소년은 야간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 회사에 들어와 하루 11시간씩 압력계 커버의 신나 세척, 페인트칠, 온도계의 수은주입 작업을 했다.

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새어나와 작업장의 공기는 수은증기로 온통 뿌영게 뒤덮였고, 바닥에는 액체가 된 수은이 널려 있었다. 작업 중에 불면증, 두통,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났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, 전신발작으로 악화되었다. 이후 4군데의 병원을 전전하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은 및 유기용제 중독 진단을 받았다.

티없이 건강하던 열 다섯 된 막내 아들이 귀신도 곡할 병에 걸리자 가족들은 목숨보다 귀했던 눈을 팔아 굿판까지 벌이고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. 4남 2녀 중 막내였던 소년은 공부하고 싶었으나 공부할 수 없었고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그럴 자유조차 잃은 채 가느다란 숨을 놓게 되었다.

“살고 싶어. 병 다 나으면 무서운 서울 떠나 농사지으며 엄마랑 살자.” 란 말을 큰형에게 남기고 이승의 소풍을 마감했다. 막내를 가슴에 묻을 수 없었던 소년의 아버지는 다음해 **“우리 송면이 학교가야지...”**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뜬다.

“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. 하지만 친구들처럼 나도 공부하고 싶다.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빠빠지게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. 자식 공부 못시키는 부모님 맘이 오죽할까. 서울에는 고등학교 공부시켜 주는 공장이 있다는데.... ” (1987년 문송면의 일기 중)

“연구원이 자리한 전주시 제지 공장에서 얼마 전 열아홉 청춘이 반복된 잔업으로 숨을 거뒀습니다. 지난 24일에는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스물 세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서 오기를 빌어봅니다.”